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자녀의 가치와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인식

Korean's Value of Children and Perception of Parenting Difficulty Investigated through Agreement to the Proverb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교 수 조복희*

호서대학교

부 교수 한유미**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

Professor : Cho, Bok-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

Associate Professor : Han, You-M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orean's value of children and perception of parenting difficulty through the agreement to the three kinds of Korean proverbs: difficulty of parenting, preference of son and value of daughter. Also,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perceived difficulty of parenting measured by the agreement of the proverb is related to the number of children they thought as ideal before marriage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y actually have. Total 385 married men and women who have a job participated in the survey. Main result is as follows.

- 1) In most cases,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was at least equal or more than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 2) The subjects showed higher degree of agreement to the proverbs regarding the difficulty of parenting than the preference of son or the value of daughter.
- 3) The degree of agreement to each kind of proverbs were different in terms of som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and sex.
- 4) When the age effect controlled, the ideal number of son had correlation with the agreement to the son-preference proverbs while the ideal number of daughter or total children had no correlation with agreement to any kinds of proverb. The actual number of s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reement to the son-preference proverbs while actual number of daughte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Korean's value of children has been rapidly changing and it has, in part, an effect on the number of children they want to have or they actually have.

▲주요어(Key Words) : 자녀의 가치(value of children), 남아선호(preferance of son), 딸의 경시(value of daughter), 양육어려움(difficulty of parenting)

* 주 저 자 : 조복희 (E-mail : cho0258@khu.ac.kr)

** 교신저자 : 한유미 (E-mail : hanyum@office.hoseo.ac.kr)

1. 서 론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부계중심의 대가족이 지배적이었으나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구조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Kagitchibasi(1996)에 의하면,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 특히 아들을 갖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자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나 남아를 선호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자녀의 심리적 가치가 중요하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 핵가족은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조부모 세대의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던 양육 관련 정보나 심리적 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한유미 등, 2006).

우리나라 역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으나 여성이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여전히 가족에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부모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또한 결혼, 가족,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미혼자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은 남성이 82.5%, 여성이 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남성의 93.1%, 미혼 여성의 88.7%는 자녀를 낳고 싶다고 응답하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교육 부담(40.4%), 소득 불안정(17.5%) 등을 이유로, 여성은 자녀 양육·교육부담(46.8%), 일·가정 양립 곤란(17.6%) 등의 이유로 자녀를 한 명만 갖겠다고 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연령의 증가 및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중의 생활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속담 중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속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잔존해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연속과 단절, 그리고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조복희 등, 1998).

속담은 '대체로 교훈이나 풍자를 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비유의 방법으로 서술하는 비교적 간결한 관용 어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로 정의된다. 또한 속담은 간결성, 비유성, 관용성, 대중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최창렬, 2002). 의미 전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로부터 일상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다(교육부, 1999). 즉, 대부분 서민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어 온 속담은 삶의 지혜나 교훈을 비유적·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훌륭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이기문, 1997). 이와 같은 속성 상 속담은 일찍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 왔다. 언어학자와 민속학자들은 속담에 고어체와 고대의 사상이 보존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고전학자와 문학가들은 속담의 간결성, 리듬감, 운율 등 시적 요소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법률학자들은 관습법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속담의 가치에 주목하고, 인류학자들은 속담에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Bargöz, 1993). 심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속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두어 오다가(Douglas & Peel, 1979; Gibbs & Beitel, 1995; Nippold, et al., 1988) 최근에는 아동에 대한 이미지나 자녀양육에 대한 속담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려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Shwalb, Chen과 Wilkey(2002)의 연구는 미국 부모들이 일본 부모들보다 전통적인 속담에 대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일본 부모들이 미국 부모들보다 또한 아동에 대해 좀 더 외롭고 이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일본 어머니들이 일본 아버지들보다 아동을 더 강하고 외로운 존재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속담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문학, 민속학, 교육학 측면에서 주로 문헌연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의 발달(조복희·이주연, 2007; 조복희 등, 2007; 김혜정, 2007; 오소정, 2001; 최하나, 2006)이나 자녀관과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속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실증 연구(조복희·이진숙, 1998; 조복희 등, 1998)가 시도되고 있다. 속담으로 본 자녀관이나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남아선호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속담(예, '아들은 내 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 딸에 관련된 속담(예, '만딸은 살림 밀천이다.')과 양육의 어려움을 담고 있는 속담(예, '무자식이 상팔자')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속담들에 관한 동의 정도가 높으며(조복희·이진숙, 1998), 가족주의 가치나 가족의 유형, 출신지역 등도 이들 속담에 대한 동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조복희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의 감소는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김의철 등, 2005)에서 남아선호나 딸의 경시에 관한 속담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속담을 통하여 오늘날 기혼 남녀 직장인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출산율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결혼 전에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결혼 후 배우자의 영향이나 가족의 분위기, 직업 환경, 경제적 여건 등의 외적 요인에 따라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특히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다. 이에 따라 먼저 결혼 전에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녀의 수와 결혼 후 실제로 출산한 자녀의 수를 비교하고, 이 두 유형의 자녀 수간의 차이를 양육지원 환경의 미비로 인한 결과(출산율 감소)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남아선호, 딸의 경시, 양육의 어려움 등의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가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적인 자녀수,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자녀수간의 차이(출산율 감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온 속담의 분석을 통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조망하고, 나아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 수립이나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 전의 이상 자녀수와 결혼 후의 실제

자녀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 속담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 속담에 대한 동의는 이상 자녀수, 실제 자녀수, 그리고 이 두 자녀수 간의 차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등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 직장인 3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성별, 연령이나 학력 등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표집과 스노우 볼(snowball) 방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11월 23일~12월 1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배부된 총 500 부의 질문지 중에서 42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미응답이나 무성의 응답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3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회수율 77%).

연구대상은 <표 1>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며, 연령별로는 30대(48.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385

변 인		N	%
성 별	남 자	195	50.64
	여 자	190	49.35
	합 계	385	100.00
연 령	30세 이하	54	14.09
	31세~40세	186	48.56
	41세~50세	97	25.32
	51세 이상	46	12.01
	합 계	383	100.00
학 력	고졸 이하	133	35.00
	대 졸	219	57.63
	대학원 이상	28	7.37
	합 계	380	100.00
가족 형태	핵가족	296	78.10
	확대가족	72	22.90
	합 계	379	100.00
성장 지역	읍·면 지역	116	30.60
	중·소도시	81	21.37
	대도시	182	48.02
	합 계	379	100.00

56%)가, 학력은 대졸(57.6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 형태별로는 핵가족(78.10%)이 대부분이었으며, 성장 지역은 대도시 출신(48.0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속담에 대한 동의

자녀가치(남아선호, 딸의 경시) 및 양육 어려움에 관한 속담은 속담집 및 관련 연구 고찰을 통해 조복희와 이진숙(1998)이 구성한 부모자녀관계 속담 중 남아선호, 딸에 대한 양가감정, 양육의 어려움 등 세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를 통해 원래의 척도에서 일반인들에게 친숙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진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딸에 대한 양가감정 속담 중에서 딸의 경시에 관한 문항만 선정하여 딸의 가치를 유추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양육의 어려움 7문항, 남아선호 6문항, 딸의 경시 5문항을 선택한 후 아동학 전공 교수와 박사 과정의 전공대학원생들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5점)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속담에 동의함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4>와 같다.

2) 이상 자녀수 · 실제 자녀수

이상 자녀수는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실제 자녀수와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가 이상적인 것인가 하는 주관적인 자녀수의 개념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전에 본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던 아들의 수(이상 아들 수)와 딸의 수(이상 딸 수),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총 자녀의 수(이상 총 자녀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실제 자녀수는 결혼 후에 실제로 출산 한 아들의 수(실제 아들 수)와 딸의 수(실제 딸 수)를 각기 기록하게 하고, 연구자가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실제 총 자녀수).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Ver 11.0)으로 분석 처리되었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빈도 및 퍼센트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3은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한 후 추후 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4는 연령을 통제한 후 Pearson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표 2>와 같이, 연구대상 기혼 남녀들은 결혼 전에는 평균적으로 2.22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이들이 출산한 자녀수는 1.68명으로 0.52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모두 최빈값과 최소값이 각기 2명과 0명으로 동일하지만 최대값은 이상 자녀수가 6명으로 실제 자녀수 4명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이상적인 아들 수와 딸의 수는 모두 평균 1명 정도로 유사하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기 0과 3으로 동일하였다. 실제 자녀수의 경우에도 아들과 딸 모두 평균 .8명 정도로 비슷했고, 최

<표 2>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385

이상 자녀수					실제 자녀수				
M	SD	Mode	Min	Max	M	SD	Mode	Min	Max
2.02	1.12	2	0	6	1.68	.67	2	0	4

<표 3>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

N=385

		n	%
목표달성 초과	이상 자녀 수 + 2 = 실제 자녀 수	3	0.8
	이상 자녀 수 + 1 = 실제 자녀 수	44	11.4
목표달성	이상 자녀 수 = 실제 자녀 수	155	40.3
목표달성 미달	이상 자녀 수 - 1 = 실제 자녀 수	128	33.2
	이상 자녀 수 - 2 = 실제 자녀 수	44	11.4
	이상 자녀 수 - 3 ≥ 실제 자녀 수	11	2.9
합계		385	100

소값과 최대값은 각기 0과 3으로 일치했다.

한편 실제 자녀수가 이상 자녀수보다 많은 경우 목표달성을 초과한 것으로, 실제 자녀수와 이상 자녀수가 같을 때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그리고 실제 자녀수가 이상 자녀수보다 미달할 때를 목표달성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3>과 같이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가 일치하는 사례(목표달성)가 4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상 자녀수보다 실제 자녀수가 1명이 적은 경우가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상 자녀수보다 실제 자녀수가 2명 혹은 3명 이상 적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목표달성 미달). 그러나 반대로 이상 자녀수가 실제 자녀수보다 많은 경우(목표달성 초과)는 11% 정도에 불과하였다.

2. 속담에 대한 동의의 일반적 경향

<표 4>와 같이 남아선호, 딸의 경시 등의 자녀가치에 관한 속담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속담에 대한 동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평균 동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속담 내용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속담에 대한 동의 점수는 모두 평균 3점 이하이며, 중간값인 3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낸 문항이 전체 20문항 중 3개에 불

과해 기본적으로 속담 내용에 대한 동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속담(M=2.82)보다 남아선호(M=2.27)나 딸의 경시(M=2.36) 등 자녀의 가치에 관한 속담에 대한 동의가 낮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선호와 관련된 속담의 경우에는 ‘아들은 내 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M=2.42)에 대한 동의가 높고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M=1.48)에 대한 동의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딸의 경시에 관한 속담 중에서는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M=2.50)의 동의가 가장 높고, ‘며느리는 데리고 살아도 딸은 데리고 못산다.’(M=2.27)에 대한 동의가 가장 저조한 추세였다.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된 속담을 살펴보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M=3.34)이나 ‘자식 걸 낳지 속은 못 낳는다.’(M=3.17)에 대한 동의는 높은 편이나 ‘무자식 상팔자’(M=1.96)에 대한 동의는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속담 동의 정도를 1998년도 응답자의 동의 정도와 비교하면 남아선호와 딸의 경시가 자녀양육의 어려움보다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아선호 속담인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된 속담들은 대부분 90년대 딸의 응답과 1 이하의 미미

<표 4>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 및 비교

	본 연구(n=385) M(SD)	90년대(n=438) M	차이	
남아선호	아들은 내 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	2.42(1.16)	3.75	1.33
	영감 밥은 누워먹고, 아들 밥은 앉아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	2.42(1.07)	3.30	0.88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2.21(1.07)	3.35	1.14
	아들은 장가를 가면 반 남이 되고, 딸은 시집을 가면 온 남이 된다.	2.20(1.08)	3.47	1.27
	아들네 집에 가서는 밥 먹고 딸네 집에 가서는 물 마신다.	2.15(0.98)	3.30	1.15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	1.48(0.70)	3.61	2.13
	합 계	2.27(0.68)	3.46	1.19
딸의 경시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	2.50(1.08)	3.82	1.32
	딸 다섯 치운 집에는 도둑도 안 들어간다.	2.42(1.43)	3.76	1.34
	시집간 딸년 치고 도둑 아년 년 없다.	2.32(1.09)	3.34	1.02
	딸은 두 번 서운하다.	2.29(1.09)	3.61	1.32
	며느리는 데리고 살아도 딸은 데리고 못산다.	2.27(1.01)	3.10	0.83
합 계	2.36(.74)	3.53	1.17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3.37(1.12)	4.22	0.85
	자식 걸 낳지 속은 못 낳는다.	3.34(1.16)	3.99	0.65
	자식 많은 어미 허리 펼 날 없다.	3.17(1.15)	4.08	0.91
	자식 없는 사람은 울지 않아도 자식 있는 사람은 운다.	2.74(1.17)	3.64	0.90
	부모는 문서 없는 종이다.	2.72(1.17)	3.60	0.88
	자식은 애틀이라.	2.46(1.17)	3.55	1.09
	무자식이 상팔자.	1.96(0.99)	2.97	1.01
	합 계	2.82(0.71)	3.72	0.90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속담에 대한 동의

<표 5>와 같이 세 가지 속담에 관한 동의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일원변량 분석하고, 추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어려움과 관련된 속담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딸의 경시에 관한 속담은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반면, 남아선호 속담은 성별, 연령, 학력, 성장지 등 여러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아선호 속담은 여자(M=1.92)보다 남자(M=2.22)가 더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F=14.31, p<.001).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추후검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50대 미만 집단들과 50대 이상 집단(M=2.59) 사이에서 나타났다(F=10.11, p<.001). 즉, 20대에서 40대까지는 남아선호 사상 면에서 유사하지만 50대 이상의 세대는 이들보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다. 학력별로 볼 때에는 남아선호 속담의 동의 비율은 대학원 이상 졸업자(M=1.76)보다 대졸(M=2.13)과 고졸 이하(M=2.27)의 학력자가(F=7.12, p<.01)가 높아서 학력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M=2.05)나 중·소도시(M=2.15)보다 읍·면 지역(M=2.35)에서 성장한 사람이 남아선호 속담에 높은 동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F=8.49, p<.001).

딸의 경시에 관한 속담의 경우에는 50대 미만 연령층보다 50대 이상(M=2.72)의 고 연령층의 동의가 유의하게 높은 것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속담의 동의 변량분석

N=385

		n	M	SD	Duncan	F	
성 별	남	193	2.22	.68		14.31 ***	
	녀	186	1.92	.61			
남아선호	연 령	30세 이하	53	2.07	.65	a	10.11 ***
		31~40세	184	2.02	.63	a	
		41~50세	95	2.22	.61	a	
		51세 이상	45	2.59	.69	b	
학 력	고졸이하	129	2.27	.72	b	7.12 **	
	대 졸	217	2.13	.63	b		
	대학원이상	28	1.76	.54	a		
성장지	읍·면	112	2.35	.62	b	8.49 ***	
	중·소도시	80	2.15	.64	a		
	대도시	181	2.05	.66	a		
딸의 경시	연 령	30세 이하	53	2.35	.71	a	4.76 **
		31~40세	184	2.26	.69	a	
		41~50세	94	2.38	.68	a	
		51세 이상	44	2.72	.96	b	
양육의 어려움	남	193	2.75	.75		4.38 *	
	녀	186	2.90	.71			

*p<.05, **p<.01, ***p<.001

<표 6> 속담에 대한 동의와 이상 자녀수 및 자녀수의 상관관계

N=385

		속담에 대한 동의		
		남아 선호	딸의 경시	양육 어려움
이상 자녀수	아들	.24***	.11	.02
	딸	.09	.02	-.01
	총 자녀	.05	-.05	-.04
실제 자녀수	아들	.19***	.10	.01
	딸	-.18***	-.10	-.05
	총 자녀	-.00	-.01	-.05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		.03	-.03	-.01

***p<.001

으로 밝혀졌다($F=4.76, p<.01$).

양육의 어려움 속담에 대한 동의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고 여자들이 양육 어려움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남아선호 속담의 경우와 반대로 남자($M=2.75$)보다 여자($M=2.90$)가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F=4.38, p<.05$).

4. 속담에 대한 동의와 자녀 수

<표 6>은 연령을 통제한 후 속담에 대한 동의와 이상 자녀수 및 실제 자녀수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구한 것이다. 이상 아들 수는 남아선호 속담에 관한 동의와 .24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p<.001$) 이상 딸 수나 이상 총 자녀수는 어떠한 종류의 속담에 대한 동의와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실제로 출산한 자녀수의 경우에는 실제 아들 수는 남아선호 속담에 대한 동의와 .19의 정적 상관이 있고($p<.001$), 딸의 수는 남아선호 속담에 대한 동의와 -.18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p<.001$). 실제 총 자녀수는 세 유형의 속담 중 어느 것보다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총 자녀수와 실제 총 자녀수간의 차이(양육 지원 환경의 미비로 인한 출산율 감소) 역시 세 유형의 속담 중 어떠한 것보다도 관련이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사회 마다 시대마다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며, 이는 개인의 출산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같은 개인의 경우에도 결혼 전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녀의 수와 결혼 후 실제 출산한 자녀의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가족의 분위기, 직업 환경,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가 자의적, 타의적으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기혼 남녀 직장인들의 60%가 결혼 전에 희망했던 자녀수와 실제로 출산한 자녀수가 달랐으며, 결혼 전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를 많이 낳은 경우(목표달성 초과)보다는 적게 낳은 경우(목표달성 미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개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제 자녀수가 이상 자녀수보다 많으며, 저출산율을 나타내는 선진국에서는 이상 자녀수가 실제 자녀수보다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평균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 자녀수 2.22명과 실제 자녀수 1.68로, 1973년의 이상 자녀수 3명과 실제 자녀수 2.8명은 물론이고 불과 5년전 인 2002년의 이상 자녀수 3명과 실

제 자녀수 2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또한 이상 자녀수 2.22명은 프랑스 부모들의 이상 자녀수 3명보다 적으며,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 가까운 수치로서 우리 사회에서 소자녀관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더욱이 실제 자녀수가 이보다 훨씬 적은 1.68명이라는 것은 이미 소자녀관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결혼이라는 현실이 출산에 대한 욕구를 더욱 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기혼 남녀들은 자녀 가치 및 자녀양육에 관한 속담 내용에 수긍하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남아선호에 관한 속담에 대한 동의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평균 2.07점으로 다른 유형의 속담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여아를 남아보다 가치 있게 여겼던 전통사회는 물론이고 불과 10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조복희·이진숙, 1998)의 남아선호 속담 동의율 3.52점과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최근 남아선호사상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볼 때 남아선호 속담 중에서 '아들은 내 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와 '영감 밥은 누워먹고, 아들 밥은 앉아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계승이나 제사, 명절 등은 여전히 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르는 과정에서의 재미는 아들보다 딸이 크며, 혼인 후의 정서적 교류도 아들·며느리보다는 딸·사위와 활발한 즉, 전통적인 부계 중심 사회에서 모계 혹은 양계 중심의 생활양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와 같은 남아선호 의식의 감소는 출생 시 성비가 1990년 116.5, 2000년 110.2에서 2005년 107.7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통계 자료(통계청, 1990, 2000, 2005)와도 일맥상통하는 수치로서 남아선호 의식의 감소가 성비 불균형의 감소를 일으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유미·곽혜경, 2004).

남아선호와 달리 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속담이 생겨난 것은 부계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 출가외인이었던 딸에게 지나치게 정을 주면 시집살이를 잘 해내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던 가정에서 혼수비용의 마련이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흔히 지적된다(조복희·이진숙, 1998). 남아선호 의식이 급격히 사라진 오늘날에도 이러한 속담이 회자되고 공감되고 있고, 특히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나 '딸 다섯 치운 집에는 도둑도 안 들어간다.'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과다혼수와 관련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아선호나 딸의 경시와 관련된 속담에 대한 동의는 1990년대 후반의 응답자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특히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라는 속담에 대한 동의는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 지난 10년간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2001년 여성부의 신설과 더불어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된 정부시책들이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된 속담은 90년대 후반의 응답과 큰 차이가 없어 자녀양육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어려운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와 1990년대의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통제되지 않아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가치관의 흐름을 보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전반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속담은 남아선호나 딸의 경시에 관한 속담비해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는 할 일이 많고 걱정이 끊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었던 '자식 걸 낳지 속은 못 낳는다.'는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넘어 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 및 체념적인 심정을 표현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무자식이 상팔자'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양육의 어려움을 지각하더라도 그 수준은 자녀가 주는 긍정적인 가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권용은·김의철, 2004).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양육의 어려움 속담에 대한 동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양육을 어려운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양육분담이 과거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들이 갈등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국여성개발원, 2005; 오경숙·한유미, 2006). 특히 본 연구대상 여성들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속담에 여성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아선호 속담은 여성보다 남성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재은, 1987; 조복희·이진숙, 199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이 그 이하의 연령층보다 남아선호 사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전통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지역적으로도 전통사회의 가치가 많이 잔존해있는 읍·면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일수록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복희 등, 1998; 한남제, 1984). 학력별로는 대학

원 졸업자보다 고졸이나 대졸자가 남아선호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고학력자가 남아선호 사상이 약한 것은 학교 교육에 의해 이들이 보다 평등주의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딸의 경시 속담에 대한 동의는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 분기점은 남아선호 속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대였다.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이 그 이하의 연령층보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고 딸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50대라는 인간발달 과정상의 시점이나 이들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 보수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의식은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상적으로 생각한 자녀수에 비해 자녀를 적게 낳는다는 것은 소자녀관 등 개인의 가치관 보다는 결혼생활이나 양육지원 환경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개인일수록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는 양육의 어려움 속담에 대한 동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는 이미 소자녀관이 정착하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자체가 평균 2.22명으로 매우 적은데다가 실제 자녀수 역시 대부분 이상 자녀수에서 ± 1 명 정도의 협소한 범위에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속담을 통해 한국 기혼 남녀 직장인들의 남아선호, 딸의 경시, 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자녀수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출산을 감소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전업주부, 미혼남녀 등 폭넓은 대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저출산 문제와 바람직한 부모상 확립을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6-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용은·김의철(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6.
-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 부양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문헌 및 조사연구-.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혜정(2007).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속담 이해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숙 · 한유미(2006).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태, 양육분담 및 양육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4(11)**. 106-117.
- 오소정(2001).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문(1997). **속담사전(개정판)**. 서울: 일조각.
- 조복희 · 이주연(2007). 후기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관한연구;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8(5)**. 19-36.
- 조복희 · 이주연 · 강기숙(2007). 초등학교 아동의 속담인지수준과 인지속담의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5(4)**, 77-86.
- 조복희 ·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19(1)**. 5-25.
- 조복희 · 안선희 · 이영환 ·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환경 및 가족가치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8)**. 105-122.
- 최성곤(2005). 여성차별적 성격의 한·일 속담 비교 고찰. **일본연구, 26**. 117-200.
- 최창열(2002). **우리속담연구**. 서울: 일지사.
- 최하나(2006). 아동의 속담 이해능력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속담 유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1970, 2000, 2005). 인구, 가구/주요 출산력지표.
- 한유미 · 광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 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1.
- 한유미 · 양연숙 · 광혜경(2006). 육아지원센터 도입의 과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45**. 75-98.
- 한국여성개발원(2005). 가족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일조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남제(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Bargöz, I.(1993). Proverb image, proverb message and social change.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30(2). 127-137.
- Douglas, J. D. & Peel, B.(1979). The development of metaphor and proverb translation in children grades 1 through 7.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3. 116-119.
- Gibbs, R. W. & Beitel, D. (1995). What proverb under-
- standing reveals about how peopl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33-54.
- Kagitchibasi, C.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A view from the other side*.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Nippold, M. A., Martin, S. A., & Erskine, B. J.(1988). Proverb comprehension in context : A developmental stud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1. 19-28.
- Shwalb, D. W., Chen, S., & Wilkey, M. B. A.(2002). Are children "among the Gods?" parental image of children and childrearing in Japan and the U.S. Annual Report (2001-2002) No. 25. Faculty of Education, Hokkaido University Sapporo, Japan.

□ 접수일 : 2007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1월 29일